

따뜻한 봄, 전남 꽃축제 일정 '비상'

지자체들, 개화 예측 사이트·전문가 자문 활용 일정 조정 광양·구례 등 준비 분주...보성·진도, 꽃봉오리만 쳐다봐

올해 봄이 빨리지면서 전남 지역 사·군이 꽃축제 일정 잡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봄 기온이 평년 대비 높은 '따뜻한 봄'이 전망되면서 꽃봉오리가 예년보다 일찍 터트릴 조짐을 보이자, 자칫 축제 시기를 잘 못 맞춰 축제를 열게 되지 않을까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이다.

더욱이 재작년에는 평년 대비 개화가 빨랐다. 지난해에는 반대로 늦어지는 등 개화 시기가 해마다 들쭉날쭉해지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 '3개월(2026년 3월-2026년 5월)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3월 월평균기온은 평년(6.9-7.7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스할 확률은 40%로 예측했다. 4월은 평년(12.2-13.2도)보다 높을 확률이 60%, 5월은 평년(17.4-18도)보다 높을 확률이 50%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봄철 내내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겠다.

이상기후로 초봄까지 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상청 설명이다.

각 지자체 꽃축제 담당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축제 일정을 하루나 일주일 늦추거나, 한 달 넘게 일정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축제 기간 유입 인구나 각종 계약을 고려해야 해 개화 시기가 맞춰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온다.

광양 매화축제(3월 12-22일)는 지난해 2월 한파로 꽃이 없는 축제를 치른 탓에 올해 특히 일정 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통 12월에 일정을 확정하지만, 올해는 1월 말로 한 달가량 늦춰 기간을 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적산온도를 기준으로 개화 시기를 역산해 최대한 늦게 일정을 잡았다"며 "기술 자료를 토대로 개화 예측 사이트 활용법을 익히고,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스 운영 등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 일정 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들의 개화 문의가 잇따르자 다음 주부터 매일 개화 상황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구례 300리 벚꽃축제(3월 27-29일)는 기존 금·토·일 일정에서 토·일·월로 하루 늦춰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추위로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진행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판단이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3월 14일-22일)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으며,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3월 28-29일)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안 섬 수선화축제(4월 3-12일)는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일정을 4월 초로 미뤘으며, 올해도 같은 시기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수선화가 예상보다 일찍 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섬 지역 특성상 선박 운항 일정까지 고려해야 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어렵고, 개화율이 낮을 경우 구근을 수입해 심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다는 설명이다.

들쭉날쭉하는 날씨에 아직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꽃샘추위로 벚꽃이 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뒤 올해는 4월 초 개화를 예상하고 있다. 진도군은 보배섬 유채꽃축제를 4월 3-5일로 잠정 확정했지만, 지난해(만개 기준 4월 10일)보다 개화 시기가 일주일여 앞당겨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진도군은 "섬 지역 특성 상 기상 변화에 다른 개화 시기 예측이 더 어렵고 교통편 조율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꽃 축제 담당자들은 "4-5년간의 추세를 보고 결정하지만 꽃샘추위, 비, 눈 등으로 꽃 시기를 맞추



지난해 구례군 미산면 화엄사에 핀 홍매화. 올해 홍매화는 3월 14일께 필 것으로 구례군은 보고 있다. <구례군 제공>

고 예측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개화가 빨라질 것 같다는 전망, 추위가 한 번에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화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늘자, 기존 연구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틀림이나 수선화 같은 구근식물은 기후 변화로 국내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적응한 화종을 발굴하고, 전남대 교수진과 함께 기후 조건에 맞는 재배·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올해 5·18 행사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3월 4일 공식 출범식...3월 12일까지 시민참여 공모

올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열린다.

25일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공식 슬로건을 발표하고 행사 출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에는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꽃'에 비유하고, 그 정신을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늘의 빛'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다시 확인된 광장의 기억과 시민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행사위는 설명했다.

올해 행사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사업' 공모도 시작한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로, 5인 이상인 전국 단체나 모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일상으로 확장·실현되는 오월 민주주의', '연대·돌봄·평등·참여·다양성 등 오월이 꿈꿨던 대동 세상', '내란과 비상사국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표상' 등이다. 체험, 기획, 공연, 전시, 학술 등 형식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건당 3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한다.

행사위는 같은 기간 '청년PM'도 공모한다. 청년 PM은 청년 주도의 기획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며, 선정된 1명에게는 청년 기획부문 사업비 3000만원이 지원된다. 1980년 이후 출생자(46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사업, 청년PM 공모 신청은 행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오는 3월 18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경중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이 46년을 맞았다. 80년 당시 태어난 아이가 46살이 된 것이다"며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절반을 넘은 지금, 12·3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저지른 청년들을 중심으로 오월정신과 연대하고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라스트 댄스 25일 조선대학교 졸업식이 열린 광주시 동구 서석동 교정에서 학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함께 춤을 추며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기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학기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전남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두 달여간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단(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을 구성하고 광주 지역 내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시설 일제 점검 등 활동을 벌인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점 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개학일에 맞춰 등·하교 시간대 경

관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장치·표지 부착, 신고필증 구비,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전남경찰청도 오는 6월 30일까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스쿨존 내 순찰 및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등을 진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성폭력 피해모임 '열매' 비영리단체로 공식 출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인 '열매'가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5·18열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에서 '5·18 열매 창립 총회'를 연다.

'열매'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5·18 성폭력 피해 증언자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9월 자조모임으로 출범해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연대자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단체는 과거 국가폭력에 따른 젠더폭력의 진실 규명과 치유·회복을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배상, 회복이 제도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슬기로운 전남 생활' 9개 언어로 제작·배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슬기로운 전남 생활 안내서인 '전남 웰컴북'이 9개 언어로 제작, 배포된다.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안내서 '전남 웰컴북'을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배부한다.

전남 웰컴북은 외국인 거주 비율을 고려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9개국 언어로 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의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6만 5698명으로, 베트남(2만 1159명·32.2%)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5727명·8.7%), 네팔(5109명·7.8%), 캄보디아(4613명·7.0%) 순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영암(1만 425명), 여수(7570명), 완도(5800명), 나주(5624명), 목포(4930명) 순으로 많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